

# 잠녀는 나이를 먹고, 바다는 생명력을 잃고

[발로 딛는 잠녀의 삶] 한림읍 귀덕2리

등록 : 2007년 02월 11일 (일) 17:25:39  
최종수정 : 2007년 02월 11일 (일) 17:25:39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귀덕2리 잠녀들은 다른 지역 잠녀들과 달리 마을과의 유대가 강하다고 했다. 잠녀들만의 일이 아니라 마을에 큰 일이 생기면 물질을 하지 않는다.

소리를 수확하는 잠녀들의 숨바쁜 자맥질로 계절을 잊은 바다여야 했다. 가쁜 숨비소리가 갈매기 소리, 파도소리와 어울려 묘한 생명력을 품어내는 바다여야 했다.

하지만 2월 찾아간 제주 바다는 색만 다를 뿐 서걱서걱 거친 기운만 가득한 사막과 같았다. 잠녀들의 쏟아지는 말소리를 대신 거칠 것 없이 먼바다에서 내달려온 서슬퍼런 바람만이 바다를 하얗게 만들고 있었다.

△“가쪽이나 물에 드는 날도 적은데…”

엔화 하락과 일본내 노로바이러스 파문 등으로 1월 한달 소라 수매가 중단되면서 잠녀들의 물질도 호흡을 멈췄다.

한창 소라를 수확할 시기에 일손을 놓은 잠녀들이 선택한 것은 물일. 쪽파작업을 하느라 주인 잃은 고무뿔만 덩그러니 탈의장을 지키고 있다.

귀덕2리 주민 중 여성이 숫자는 329명, 전 현직 잠녀 수가 109명인 것을 감안하면 귀덕2리 여성 3명 중 1명은 잠녀인 셈이다.

최고령 잠수가 올해 경력 70년의 양자임 할머니(87)이고, 최연소 잠녀의 나이는 올해 45살이다. 상시 잠녀 47명 중 31명이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뚜렷했다.

조인숙 귀덕2리 어촌계 간사는 “2000년 이후 어촌계에 가입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며 “이곳 잠녀들 중에는 금성이나 금릉, 중문 등 타 지역 출신 잠녀들이 많다”고 말했다.

115만2000㎡의 적지않은 어장이 마을 전체에 따라 형성돼 있지만 이곳 잠녀들의 한해 벌이는 평균 400만~500만원 수준에 그쳐 전업은 염두도 못낸다고 했다.

이곳 잠녀들은 마을과의 유대도 강한 편이다. 잠녀들 사이의 일뿐만 아니라 마을에 큰 일이 생기면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사실상 작업일수가 많지 않다.

이곳 어촌계에서는 선들코지를 중심으로 선녀복(‘서여복’을 부르는 말이라고 했다)과 동녀복을 오가며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복종패를 뿌려둔 양식장은 공동작업·공동분배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때 1만5500kg이나 채취되면서 44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톳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지난해 공동작업을 통해 1인당 20만원 남짓 나뉘었다.

주요 수입원인 전복·소라 생산량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물질보다는 물일을 더 많이하는 잠녀도 늘었다.

△사라지는 것들엔 이유가 있다

귀덕2리에는 꽤 넓은 면적의 소금밭이 이었다고 했다. 매립되고 해안도로가 나고 하면서 지금은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일부는 폐허 상태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

11개나 있던 원도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용천수의 흔적도 곳곳에 있다.

개발 바람에 조금씩 밀리면서 이제는 마을지 등을 통해서나 그 유래나 쓰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바다도 오랜 가슴앓이로 품안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곳 어촌계원이라면 적어도 한달에 한번 바다를 청소하고 잠녀들은 여름 한철 어장 관리로 바쁜 하루를 보낸다.

양식장도 두 곳을 번갈아 사용하며 해초 등의 고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를 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인 듯 하다.

매년 진행하던 갯닥이를 지난해는 하지 못했다. 갯닥이를 할 만큼 톳 등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던 탓이다.

하루 평균 적어도 4시간, 생과 사를 넘나들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힘든 작업을 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은 예년만 못하다.

“종패 뿌려둔 것이랑 다 어디 갔는지 눈을 씻어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잠녀들의 하소연이다.

수심 20m 내외까지 잠수하는 숨씨 좋은 '상군' 잠녀들의 수입도 예전만 못한데다 70·80대 잠녀들은 알은 바다에 사는 성게를 잡거나 천초, 툇 등 해조류를 뜯어 버는 것이 전부다.

양식장 등이 해안에 들어서면서 바다는 조금씩 병들어가고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잠녀들은 세월에 밀리고, 그네들의 공생 관계가 깨지면서 바다는 그 간의 생명력을 잃고 잠녀들은 그런 바다를 떠나고 있었다. 이제 더 어디서 숨비소리를 찾아야 할까. 바다의 겨울은 봄을 기다리지 못한 채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림읍 귀덕1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http://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